

시민 생활불편 '제로'

전주시, LH·LX와 주거재생 사업 활성화 협약 기관별 역할 분담 통해 저층 주거지 재생 활성화

장기간 방치돼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빈집 정비 등 주거지재생을 본격화 하기위해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손을 맞잡았다.

시는 28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 3개 기관 관계자와 전주시의회 강동화 부의장과 김은영 시의원, 조준배 전주시 주거재생 총괄기획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 속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저층 주거지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재생하는 주거지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3개 기관이 '주거지 재생 활성화'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노후화된 주거지를 재생하기 위한 기관별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기관별 역할을 살펴보면 전주시는 빈집 실태조사 현황과 생활SOC사업 현황 등을 LH·LX와 공유하고, LH는 빈집정비사업의 후보지 발굴과 빈집뱅크 구축을 담당하고, LH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저층주거지 내 빈집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담당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시가 구도심 내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위

생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및 저층주거지 현황, 생활SOC사업 현황 등을 제공하면, LX가 이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게 된다.

이후, LH는 시법단지를 조성하는 등 주거재생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는 관련 사업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LH와 LX의 경우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시범지역으로 전주시를 선택하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LX와 '전주형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최근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주변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전주시설공단, 내달 2~17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전성환)은 추석 연휴를 맞아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7일까지 전주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맞아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광고물이 만연할 것을 예상한 조치다.

불법광고물은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단속대상은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159개소와 벽보관 85개소 주변 불법광고물이다.

공단은 불법광고물 적발 시 즉시 철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에 귀성객을 노린 각종 공연, 음식점 광고, 아파트 분양 등을 홍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이 급격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으로 시민과 귀성객들이 밝고 쾌적한 분위기의 명절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멋진 격파 선보이는 태권도원 상설공연단 제5회 태권도원배 전국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한창인 28일 무주군 태권도원 T1 공연장에서 태권도원 상설공연단 관계자들이 태권도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여성취업 활성화 '머리 맞대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도내 하반기 HR 담당자협의회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운애 센터장)는 도내 일자리창출 유망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지난 27일 전북도를 비롯해 잡코리아(유), 전주고용센터,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 등 총 11개 일자리 관련기관 및 센터가 참여한 가운데 하반기 전북지역 HR(human resources)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역 HR담당자 협의회는 도내 일자리창출 유망기관 간 네트워크 형식으로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취업 유망기업 발굴, 일자리 유망기관 간 공동협력사업 및 기관별 사업공유 등에 대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신규교육과정 발굴, 유망기관 협업 취업박람회, 일자리관련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하반기 및 내년도 일

자리정책지원제도 변경, 복지 지원 사업 공유, 사회적 기업 경력단절여성 우대 채용 홍보 등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여성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운애 센터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일자리 분야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 제언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며 "하반기도 기관별 사업 공유로 협업해 업무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경력단절여성 뿐 아니라 모든 여성들의 취업이 활성화돼 워라밸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병원, 찾아가는 인권교육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방안 이해, 활용을 위해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인권경영팀 주관으로 진행된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일반 간호사(1부), 중간 관리자 및 관리자(2부)를 대상으로 2부에 걸쳐 진행됐다.

강사 김재운 법학박사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으로, 교육에서 △인권감수성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인권침해 대응체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펼쳤다.

간호사, 관리자 강의에 참가한 직원들은 "실제 사례를 통한 설명이 인권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큰 도움이 됐다"며, "타인과 자신의 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호평했다.

조남천 병원장은 "우리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다가오는 새 시대를 현명하게 맞이하는 필수 덕목이다"고 말하며, "지역거점 국립대학병원으로 출신수범의 지제로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발달장애인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전주시, 도서관 사서업무 보조 채용 근로자 간담회

전주시가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시는 28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지난 7월부터 도서관에 채용돼 도서관 사서업무 보조로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근무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승수 시장은 대부분 처음 직장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발달장애인 및 부모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는 등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시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 도서관 사서업무 보조 4명을 채용, 서신·효자·송천·아중도서관에 배치해 근무토록 했다.

이와 관련 발달장애인 사서업무 보조 채용은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시정철학을 반영된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며,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과 편견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는 필수"라며 "사서보조 일자

리 채용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민간영역의 장애인 고용창출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전주시는 오는 9월 27일까지 한 달간 학교주변의 노후·불법 간판과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정비대상은 △교통·보행에 방해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가 쓰인 유해 광고물 등이다.

/송효철 기자

창업도약 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주시·탄소융합기술원, 싱가포르에 시장개척단 파견

전주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싱가포르에 창업 후 3년부터 7년 사이 창업도약기 5개 기업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이번 시장개척 프로그램은 기술원이 주관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에 맞춤형 바이어 발굴, 현장방문을 통한 1:1 심층 수출상담, 현지 시장조사를 통한 최신 트렌드 파악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계획됐다.

이번 개척단에는 △카본디자인 △블랙스 △송현엘앤씨 △케이에스코 △구

다이글로벌 등 탄소소재·IT 등 4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다.

앞서, 시와 기술원은 3개월 전부터 대상 기업 발굴과 제품 시장성 평가, 유망바이어 발굴 등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왔으며, 시장개척 활동 전 △현지 시장 현황 및 바이어 상담요령 △영문 카탈로그 제작방법 지원 등 사전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했다.

시와 기술원은 시장개척단의 국내 복귀 후에도 협력기관인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수출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